“새싹불자 음성공양 즐겨보자”

제3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2월 23일 개최

어린이 포교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단이 올해에도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성원)는 ‘언제나 기쁨으로 화합의 노래를’이란 주제로 제3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2월 23일 오후 5시 부산영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합창제는 총 8개 사찰 △부산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 △영도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 △ 흥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안국선원 안국어린이합창단 △함양 서암정사 상림어린이합창단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합창단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참여한다. 공연은 합창단별로 3곡씩 준비해 무대를 장식하며, 각 합창단의 특색을 볼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3년 전 어린이 포교를 위해 창단됐다. 이후 전국 사찰을 다니며 합창단 창단을 권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대광명사와 동화사는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했으며, 진흥사와 한국불교대관음사 등 각 사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의 포교 성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싹 불자 양성이다. 대원사의 경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대부분 초심자로 처음 절을 찾는 사람들이여서 의미가 더욱 크다.

회장 성원 스님은 “합창단 창단을 통해 불교 초심자들이 편하게 절을 찾고 불교와 친숙해져 더할 나위 없는 포교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빛고을 빛낸 불교계 자비나눔

신광사 · 연화사 등 입춘기도 회향 쌀 나눠

광주 신광사(주지 동현)는 2월 13일 입춘기도 회향을 맞아 신도들이 시주한 쌀 1,700㎏을 빛고을나눔나무 등 지역 불교단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동현 스님은 “매년 1년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정월에 시주한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된다”며 “이 같은 공덕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 지산동 연화사(주지 명신)도 같은 날 기도회향을 맞아 2,400㎏ 쌀을 광주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하고 신도들의 정성을 지역사회에 회향했다.

명신 스님은 “지역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불교단체가 많이 있다. 이 단체들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신도들이 모은 자비의 쌀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좋은 씨앗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은 20여 년 전부터 매년 정월기도와 입춘을 맞아, 신도들이 모은 쌀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산불교교육대, 승가 교육도량 도약

승려연수기관 인증 특강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2019년 조계종 승려연수기관으로 인증받고 이를 기념하는 특강을 마련한다. 특강은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의 ‘화엄 세계의 이해’란 주제로 3월 12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신동아오피스텔 5층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진행된다. 이어 3월 19일~4월 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경전에 근거한 재가불자들의 수행방법’을 강의한다. 특강 참가비는 무료다. 승려연수는 유식 30송을 주제로 올해 9월 열리며 이만 동국대 명예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2019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규 과정은 △기초교리학과 △불교학과 △대학원 △수화과 △다도과가 있으며, 힐링과정으로는 △웰빙힐링장생아카데미 △민요반 · 대금반 · 사물놀이단 △합창단이 개설된다. 특히 불교문화포교사에 도전할 수 있는 불교문화학과도 모집 중이다. 입학식은 3월 11일 오후 7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알 삼배’ 새 불교문화로 확산

삼보종찰 새해 인사 순례, 역대 최다 인원 찾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설 명절을 맞아 불법승 삼보를 상징하는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에 세배를 올린 불자들이 올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개인 사찰에서 진행하던 ‘통알 삼배(삼보에 새해 인사를 올리는 문화)’가 삼보사찰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전국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하는 기도 문화이자 새로운 명절 문화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주말 2월 10일 새벽, 통도사 산문 앞에는 대형버스 행렬이 줄을 이었다. 새벽예불에 참석하고자 찾은 불자들의 행렬이었다. 삼보 사찰 순례 가운데 첫 번째 사찰로 통도사를 방문한 불자들이다. 통도사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 설법전에 들어가기 위한 줄이 이어졌고 지하 문수법당까지 자리가 가득 찼다.

이날 통도사 새벽예불을 찾은 삼보회 불자들만 800여 명으로 대형 버스 17대가 움직였으며, 금강자비회 및 신행단체 불자들까지 포함해 4000여 명이 새벽예불을 찾았다. 이날을 제외하고 설 명절까지 포함하면 통도사에는 1만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보회는 17년 전 통알 삼배를 대중문화로 이어가도록 순례를 시작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대중을 이끌어 통알 삼배에 동참하도록 돕고 있다.

해인사와 송광사에도 새해를 맞아 예불 시간에 맞춰 찾아온 불자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사 원주 시안 스님은 “최근 5~6년 사이 더 활성화 된 것 같다”며 “찾아오

통도사에만 1만여 명 몰려

해인사 · 송광사도 인산인해

새벽예불 맞춰 불자들 찾아

“몇 년 새 사람 부쩍 늘어”



명절을 맞아 불법승 삼보를 상징하는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를 방문해 세배 올리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10일 새벽 불자들이 통도사 전각 앞에 줄을 선 모습.

신 분들의 신심과 원력에 감사하고 요즘처럼 불자가 감소하는 시대에 정초 맞아 찾아주는 불자를 보면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정분남 삼보회 회장은 “매년 삼보사찰을 찾아다니지만 이렇게 설법전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17년 전 버스 한 대로 시작해 꾸준히 사람이 늘어나더니 이젠 인원이 많아져서 보람도 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자들은 각 사찰을 방문해 기도하며 공양비를 올리고 있다. 특히 삼보회는 참가자의 회비를 모아 버스 이용료를 제외하고 모두 대중공양금과 후원물품으로 회향하고 있다. 또한 각 선방을 방문해 유나 스님에게 대중공양금을 전하는 등 후원으로 첫 한 해를 시작한다. 대중 공양금 및 후원품에는 전국불자들의 십시일반 정성도 이어지고 있다. 순례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자들은 미리 삼보회에 연락해 대중공양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삼보회 임원들은 대중공양을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 밤새 직접 국을 끓이고 주먹밥을 손수 만드는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

성희강 삼보회 총무는 “1년 전부터 준비해 버스 탑승 인원을 확인하고 음식도 준비하는 등 수고로움이 있지만, 매년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환희심에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다”며 “정초에 불법승 삼보에 세배함으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분남 회장은 “삼보가 없으면 불교도 없다. 삼보의 소중함을 알리고 삼보 통알, 세배 올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니 더욱 기쁘다”며 “새로운 불자들의 문화로 포교를 위한 방안으로도 기획되고 발전되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주에 세계평화명상센터 첫 삽

서고사 일원 100억 예산

2020년 완공 목표 공사



전주 서고사 부지서 진행된 명상센터 기공식.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전주에 들어선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성우)는 1월 30일 전주시 만성동 서고사에서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부주지 일원 스님,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김송일 전북부지사, 김양원 전주 부시장 등 불자 15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기공식에서 법어를 통해 “마음을 닦아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선과 명상 등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며 “첫 삽을 뜨게 되는 세계평화명상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풍요와 휴식을 제공하고 요익중생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서고사에 건립하게 될 세계평화명상센터는 총 100억 원의 예산(국비 30억 원, 지방비와 자부담 각 35억 원)을 투입해 8만6% ㎡의 부지에 명상생활체험관, 교육복합관 등 총 3,358㎡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올해 7월까지 부지조성공사와 명상체험관을 우선 건축하고 내년에 교육복합관을 건립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금산사는 세계명상센터가 건립되면 명상생활체험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정신 확산과 한류정신을 대표하는 전주시의 정체성과 종교문화 도시의 모델 구축, 미륵사지 및 한옥마을과 연계한 명상체험 관광지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노인복지관 일자리사업 발대식

어르신 317명 활동 예정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2월 11일 관내 대강당서 ‘2019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선배시민 대표 신형범 어르신의 시낭독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축사, 참여자 선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고창경찰서 조태송 계장과 이희종 석정웰파크병원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고창군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 지원사업, 학교주변환경 안전계도관리 지원사업, 건강체조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지역보육시설 및 아동센터도우미 파견사업, 행복나눔이 어르신문화체험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돼 총 317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 ▶총장실 : (02)511- 1080
- ▶http://www.njutcm.co.kr